

지난해 20대 그룹 총수들, 평균 연봉 '73억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221억 3500만원 '1위'

6년째 연봉 '0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포함無

지난해 20대 그룹 총수들의 평균 연봉은 73억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수들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총 221억3500만원을 수령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가장 연봉이 적은 총수는 지난해 3월 현업에서 물러난 뒤 6억2600만원을 받은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다. 6년째 연봉 '0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순위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그룹 총수 연봉 1위는 이재현 회장으로 CJ로부터 106억4400만원, CJ제일제당으로부터 72억9400만원, CJ ENM으로부터 41억9800만원을 받아 총 221억3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전년 218억6100만원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재계 총수 연봉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에서 총 154억100만원을 받은 신동빈 회장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의 경우 아직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사법보고서를 내지 않은 만큼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는 154억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3위는 전년보다 18억5000만원 늘어난 106억2600만원을 받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현대차에서 70억100만원, 현대모비스에서 36억250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4위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으로 LG에서 급여 46억2700만원과 상여 48억5100만원 등 총 94억78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88억2600만원보다 7.4% 증가한 금액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90억100만원을 받아 5위에 올랐다. 김 회장은 지주사에서 36억100만원, 한화솔루션 36억원, 한화건설 18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75억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 37억9000만원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허정수 GS그룹 명예회장은 GS에서 15억5600만원, GS건설에서 급여 24억1000만원과 상여 37억1300만원 등을 받아 총 76억7900만원을 챙겼다. 허 명예회장의 동생인 허태수 GS 대표이사 회장은 GS에서 급여 26억4300만원과 상여 40억7300만원 등 총 67억1600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 박정원 두산 회장 64억8100만원, 조원태 한진 회장 51억8000만원, 이해욱 DL 회장 48억100만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 46억8400만원, 최태원 SK 회장 35억원, 구자은 LS 회장 25억9000만원, 정기선 HD현대 사장 11억1487만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6억2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들 14명의 총수 연봉 평균은 7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20대 그룹 중 오너가 없는 포스코, 농협, KT와 비상장 회사인 부영그룹, 중흥건설은 제외됐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6년째 무보수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후인 지난 2017년 2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단 삼성 계열사의 주식 배당금은 매년 받고 있는데 2021년에는 배당금으로 3634억원을 받았다.

뉴시스



불황에도 치솟는 몸값...산업계 연봉킹 어디?

반도체 업계 '투톱' 삼성·SK하이닉스, 매년 '연봉 기네스'

LG전자도 첫 평균 1억 돌파... '기술 인재 잡자' 안간힘

반도체 등 전자업계가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몸값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가 더 크지만, 물가 고공행진으로 전자업계 주요 대기업들 중 심으로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이 더 늘어난 전망이다. 아울러 인재를 잡기 위한 대졸 초임 경쟁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업체 3곳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삼성전자 1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임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1억4400만원보다 6%가량 줄었지만, 전자업계에서 연봉이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추적이 거세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평균 연봉이 1억3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 늘었다. 사업부별 평균 연봉이 공개되지 않아 두 회사 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연봉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S그룹 지주사 LS도 평균 연봉이 1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LG전자도 지난해 사상 처음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200만원을 기록하며 1억원을 돌파했다. 삼성전기(9700만원)와 LG디스플레이(9400만원)도 연봉 1억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8인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DB하이텍도 연봉 평균액이 95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 대표 펌리스(설계)인 LX세미콘은 8800만원으로, 전년(9700만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성과급을 포함한 미등기 임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SK하이닉스 7억5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전자 7억300만원, LG전자 5억100만원, LG디스플레이 4억8900만원, 삼성전기 3억4500만원 등이다.

전자업계 임금 경쟁의 최대 격전지는 '신입 초임'이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대졸 초봉을 515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91% 인상했다.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초봉을 5300만원으로 올리며 신입 직원간 보수가 역전되자, 반도체 직원들만 따로 추가 인상을 결정할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DS부문 대졸 초봉은 ▲2020년 4450만원 ▲2021년 4800만원 ▲

여직원도 '역대 연봉' 기업들, 어디 있나?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이 2021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역대 클럽'에 진입한 곳은 많지만, 유독 여성 임직원 평균 연봉은 대개 남성보다 낮아 1억원이 넘는 곳이 많지 않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여성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기업은 16개사에 달했다.

금융권을 제외하고 여성 임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GS칼텍스다. 고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 평균 연봉은 정유, 석유화학, 유통, 기타 등 부문별로 제각각이다. 이 중 여성 임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기타 부문으로 1억2997만원에 달했다. 같은 정유업체인 에스오일도 GS칼텍스처럼 정유, 석유화학, 유통, 기타 부문의 연봉이 다르지만 가장 높은 것은 기타 부문의 여성 임직원 평균 연봉으로 1억1976만원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은 여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전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업계 평균 급여도 많이 올랐다. 삼성SDI의 경우 에너지와 전자재료 부문의 평균 연봉이 다르다. 에너지 부문은 여직원 평균 연봉이 9700만원에 그쳤지만 전자재료 부문의 여직원 평균 연봉이 1억900만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1억1530만원)와 SK하이닉스(1억1248만원)도 여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겼다. SK텔레콤과 네이버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 업종도 여직원 역대 연봉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SK텔레콤 여직원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이었으며 네이버는 1억1740만원으로 나타났다.

삼성SDS(1억원) 역시 여직원 평균 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도 여직원 평균 급여가 높았다.

한국투자증권 리테일영업 부문은 1억9963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지원과 본사영업 기타 부문 등을 합치면 여직원 평균 연봉은 다소 내려간다.

메리츠증권도 본사 영업 부문이 1억9134만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본사영업 부문이 1억2700만원, NH투자증권은 1억19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은행

지난해 5150만원 순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말 5300만원으로 최근 2년간 850만원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은 여기에 추가로 연봉의 절반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이를 합치면 1억원에 육박할 정도다.

반도체 업계의 임금 경쟁으로 인재 확보가 쉽지 않자, DB하이텍도 지난해 직원 초임을 42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4.29% 인상을 올렸다.

올해도 신입 초임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LG전자 노사는 최근 임금 인상률을 6%로 확정하면서, 신입 초임을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임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업계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대규모 시설 투자가 예정돼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수 년간 "판교가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올해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 인상 결정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고물가가 임금 인상을 자극하고, 다시 임금 인상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우려한다. 반면 임금 인상이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 종사자에게 국한된 '그들만의 리그'라는 시각도 있다.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00만원, 하나은행은 1억200만원이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보험업계에서도 여직원 역대 연봉이 속출했다. 삼성화재는 여성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110만원을 기록했고, 신한라이프생명보험도 평균 연봉 1억700만원에 달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g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각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